

부자이면서도 불행해하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해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성전스님-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협약식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10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레이비즈니스그룹, 비티메디, 에스제이바이브, 지킴스, 코유라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 홍보·기금모연 및 의료지원 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기금모연 및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을 비롯해 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병원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기금 모연에 뜻을 함께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매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하여 불교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박람회 관람객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불교종립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맞아 '점등식'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월 9일, 바이오메디캠퍼스(BMC)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성정석 동국대학교 BMC 부총장,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및 BMC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도법사 능지스님은 점등 인사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등불 되어, 걸음마다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캠퍼스 주변을 돌며 마음의 평화와 자비의 세상이 실현되기를 축원했다.



간호부의 든든한 인재, '2025년 교육책임간호사 위촉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지난 4월 8일, '2025년 교육책임간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월 1일자로 위촉되는 22명의 교육책임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간호부장과 간호부 팀장들이 함께 참석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완임 간호부장은 "초유의 의정사태로 인한 전담간호사 대폭 증원과 역할 변화, 간호법 제정 등을 넘어서 뉴노멀의 시간을 맞이했다"며 "2025년에는 병원 정상화를 목표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책임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년의 시간 동안 교육책임간호사로서의 역량강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호부에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사우샘프턴 의대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임상실습 진행 글로벌 의료 교류 강화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ampton)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임상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3명의 의대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국의 실제 의료 환경 속에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과정을 참관하며, 다양한 진료 과목을 체험했다. 특히 내과, 응급의학과 등에서의 실습을 통해 환자 진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료진과의 협업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실습은 글로벌 의료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외 의료진, 의대생, 대학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호스피스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6회 신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0명이 수료했다. 이어 4월 8일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 역량 강화교육'을 병원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 활동 인력의 직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총 40명이 참여해 환자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았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완화의료의 전문성과 돌봄 역량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567명

기간 ▶ 2025. 3. 1. ~ 3. 31.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순금 님	10,050,000
성법스님	10,000,000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님	5,000,000
박혜성 님	5,000,000
익명	5,000,000
석일스님	5,000,000
주은자 님	1,300,000
故 김용일 님	1,000,000
백용해 님	1,000,000
정안스님	1,000,000
지윤스님	1,000,000
진호스님	1,000,000
허미혜 님	1,000,000
외 554명	(단위 : 원)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존중과 자비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